

# (주)나스미디어

089600 | KOSDAQ | 기타서비스

구분 : 정기주주총회 | 일시 : 2014. 03. 27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4 세일아트홀

## Executive Summary

▶ 2013년 7월 신규 상장한 나스미디어는 금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현금 배당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그리고 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감사 선임 후보자 조일은 KT 출신이며 현재도 KT에 재직하고 있다. 나스미디어의 최대주주는 KT이며, 나스미디어는 KT 기업 집단에 속해 있다. 아울러 KT 및 KT 계열사 등과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최근 불거진 KT의 부실한 내부 통제와 최고 경영자의 횡령 배임 혐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조일 감사 후보자의 감사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므로 조일 후보자의 감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

## Agenda & Recommendations

No	의안	이사회	네비스탁
제1호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2호	현금배당의 건 (주당 170원)	찬성	찬성
제3호	정관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제4호	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4-1	사내이사 정기호 재선임	찬성	찬성
4-2	기타비상무이사 차원상 재선임	찬성	찬성
<b>제5호</b>	<b>감사 선임의 건</b>	<b>찬성</b>	<b>반대</b>
<b>5-1</b>	<b>감사 조일 신규선임</b>	<b>찬성</b>	<b>반대</b>
제6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7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의안 세부 내역]

▶ 제1호 의안 : 제14기 (2013.01.01 ~ 201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현금배당의 건

- 배당예정 내용 : 보통주 1주당 170원

▶ 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일부 수정, 이사 결원시 보선 관련 내용 추가, 상담역 및 고문 명칭 변경,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 통지 강화, 중간 배당 조문 삽입 등

▶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선임)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사내이사	정기호	60.03.06	1	재선임	- 구(주)키노피아 대표이사 - (사)한국온라인광고협회 고문	(주)나스미디어 대표이사	Michigan State Univ. MBA
기타비상무이사	차원상	67.07.20	2	재선임	- KT 미디어&콘텐츠부문 광고사업단장 - KT 인터넷추진본부	KT 미디어허브 광고사업본부장	Illinois State Univ. 경영학 석사

▶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비상근감사	조일	66.04.13	3	신규선임	- KTH 상무 - KT 재무실 재무회계담당	KT 경영기획부문 재무실 재무회계담당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MBA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1)	4(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500,000,000	500,000,000

▶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5,000,000

###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전년 대비 자산은 약 65억원 증가해 총 자산은 약 971억원 수준, 부채는 약 61억원 감소한 409억원 수준이며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 자본 총계는 약 126억원 증가한 562억원 달성
-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약 13억원 증가해 248억원을 달성했으나 영업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16억원 감소한 61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8억원 감소해 56억원 달성
- 결산배당은 주당 170원이며 배당 총액은 약 14억원 (전년도 배당 주당 177원)
-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제안하며,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현금 배당을 책정하여 현금 배당의 건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권고

### Discussion

### Analysis

#### ▶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주당 170원의 현금 배당의 건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제1호 의안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한다.

아울러 전년 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7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한 것은 주주 권익 보호에 긍정적으로 판단되므로 제2호 의안인 현금 배당의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찬성의 의견을 권고한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나스미디어 이사회는 정관 변경을 통해 정관 내용을 두루 정비하고자 하는데, 주주총회 소집 통지 내용 강화와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에 대한 주주 통지 강화, 중간 배당 조항 삽입 등은 주주 권익에 긍정적으로 판단. 이사 결원시 보선에 대한 내용 추가는 유사시 안정적인 경영의 지속을 가능케 하며 상담역 및 고문 명칭을 KT 그룹의 일원으로서 자문역으로 일원화 하는 것은 그룹사로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경영 활동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 권고

Discussion

Proposal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25조 [소집통지 및 공고]</p> <p>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b>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b>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략) 회사의 본,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b>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업협회</b>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37조 [이사의 임기] (신설)</p> <p>제45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b>상담역 또는 고문</b> 약간 명을 둘 수 있다.</p>	<p>제25조 [소집통지 및 공고]</p> <p>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b>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b>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략) 회사의 본,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b>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b>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37조 [이사의 임기]</p> <p>②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결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45조 [자문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b>자문역</b> 약간 명을 둘 수 있다.</p>	<p>- 주총 소집통지 목적사항에 감사 선임 내용 추가 - 상법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p> <p>- 이사 결원 시, 보선에 대한 내용 추가</p> <p>- 표현 현행화</p>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계속)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56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8조 [이익배당]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제56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b>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b></p> <p>제58조 [이익배당] ③ <b>회사는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6월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결의 결의로 금전으로 이익을 중간배당 할 수 있다.</b> ④ <b>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b> ⑤ <b>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시효가 완성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b></p>	<p>- 외감법에 의거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에 대한 주주 통지 강화</p> <p>- 중간배당에 관한 조문 삽입</p>

Analysis

주주권의 보호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정관 정비

▶ 주주권의 보호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정관 정비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개정 사항 가운데, 주주총회 소집 통지 목적사항에 이사 뿐만 아니라 감사 선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통지 공고해야 한다는 정관 제25조 변경과 외감법에 의거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제56조 변경, 그리고 중간배당에 관한 조문을 새로 삽입한 정관 제58조의 변경은 주요 경영 정보에 대한 주주 통지 의무 강화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분배한다는 취지에서 주주 권익 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사 결원 발생시 보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정관 제37조 변경과 상임역 및 고문 명칭을 자문역으로 수정한 정관 제45조 변경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이사 결원 발생시 이사의 보선과 보선된 이사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사외이사와 같이 법령에 의해 의무로 부과된 이사 선임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사 결원이라는 유사시에 특별한 혼란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그리고 KT 기업집단에 소속된 일원으로 그룹 내에서 통용되는 직책으로 명칭을 일원화함으로써 그룹사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을 권고하는 바이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사내이사 후보자 정기호는 나스미디어가 설립된 2000년부터 재직했으며, 과거 나스미디어의 최대주주로서 나스미디어의 사업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비전을 갖고 있어 사내이사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 제안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차원상은 모회사인 KT에서 광고사업 책임자로 재직하고 있어 나스미디어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광고 사업에 적합한 후보자로 판단되어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 되는 것에 대해 찬성 의견 권고

Discussion

Proposal

▶ 이사 선임의 건

[이사 후보자 세부 내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사내이사	정기호	60.03.06	1	재선임	- 구(주)키노피아 대표이사 - (사)한국온라인광고협회 고문	(주)나스미디어 대표이사	Michigan State Univ. MBA
기타비상무이사	차원상	67.07.20	2	재선임	- KT 미디어&콘텐츠부문 광고사업단장 - KT 인터넷추진본부	KT 미디어허브 광고사업본부장	Illinois State Univ. 경영학 석사

Analysis

전문가 중심의 사내이사 구성

▶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

사내이사 후보자 정기호는 나스미디어 설립 당시부터 재직해 왔으며 2002년 나스미디어의 지분을 전량 취득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나스미디어의 성장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그러므로 나스미디어의 사업과 기업 문화, 미래 비전까지 회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경영자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타비상무이사 차원상은 비상근이긴 하지만 나스미디어의 모회사인 KT에서 광고사업 책임자를 맡고 있어 나스미디어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인 광고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기업 가치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회에 회사를 가장 이해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이 참여한다면,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기호 후보자와 차원상 후보자의 이사 재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을 권고한다.

###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안함.

- 감사 후보자 조일은 나스미디어의 최대주주인 KT에서 재무회계담당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 최대주주 및 이사회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는 감사 후보자로 최대 주주에서 임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나스미디어가 속해있는 KT 기업집단을 둘러싼 일련의 내부 통제 및 횡령 배임 혐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조일 후보자의 감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

### Discussion

### Proposal

▶ 감사 선임의 건

[감사 후보자 세부 내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비상근 감사	조일	66.04.13	3	신규선임	- KTH 상무 - KT 재무실 재무회계담당	KT 경영기획부문 재무실 재무회계담당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MBA

감사 독립성 확보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 감사 후보자 독립성에 대한 의문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비상근 감사 후보로 상정된 조일 후보자는 최근까지 KT의 자회사인 KTH(케이티하이텔)에서 CFO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KT 경영기획부문 재무실 재무회계담당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런데 나스미디어의 최대주주는 KT이며 지분율은 약 45.38%(2013년 9월말 기준)이다. 나스미디어의 전 최대주주는 현 대표이사인 정기호였으며 KT가 나스미디어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KT 기업집단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임원 구성 역시 대부분이 최대주주인 KT 출신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9월 말 기준 나스미디어의 등기임원은 총 5명이며, 그 중에는 사외이사 1명, 감사 1명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이사인 정기호와 사외이사 한정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타비상무이사 2명과 감사 1명은 모두 전현직 KT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성명	담당업무	상근여부	주요경력
등기임원	정기호	대표이사	상근	현 나스미디어 대표이사
	한정호	사외이사	비상근	현)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현) 광고진흥자금 운영위원
	주영모	기타비상무이사		전) KT 시너지경영실 출자경영담당 <b>현) KT 시너지경영실 미디어컨텐츠 시너지담당</b>
	차원상			전) KT 미디어&콘텐츠부문 광고사업단장 <b>현) KT 미디어허브 광고사업본부장</b>
	이성진	감사		전) KT 재무실 재무기획담당 <b>현) KT 가치경영실 그룹재무회계단 단장</b>

이처럼 등기임원의 절반 이상이 KT 전현직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직 감사 역시 현직 KT 임원 출신이 포진되어 있어 사실상 감사의 이사회 및 최대주주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나스미디어는 사업 관련성 등의 이유로 KT 및 KT 계열사들과 일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현직 KT 임원인 조일 감사 후보자가 감사로 선임될 경우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나스미디어의 최대주주인 KT는 최근 허술한 내부통제와 최고경영자의 횡령 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부실한 기업 지배구조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KT 자회사인 KT ENS가 대규모 대출 사기에 연루되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고 그 과정에서 모회사인 KT가 KT ENS의 법정관리를 사실상 방치해 꼬리 자르기라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KT는 최근 개인 정보 유출 문제로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을 유발했으며 전 최고경영자인 이석재 전 회장이 자산 헐값 매각과 비자금 조성, 부실 투자 등 횡령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안팎의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나스미디어 역시 KT 자회사로 KT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임원 상당수가 KT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KT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스미디어의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사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 의사결정의 투명성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운 조일 감사 후보자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하는 바이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 기능의 강화를 권유한다.

###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당기 나스미디어의 이사 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4명(사외이사 1명 포함)이며, 상정된 보수 한도액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5억원이며 2013년 9월말까지 4명(사외이사 1명 포함)의 이사에 대해 5억원의 보수 한도 가운데 약 1.3억원을 집행하였음
- 감사 보수 한도액은 감사 1명에 대해 5백만원으로 상정하였으며, 이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음
- 전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정된 의안이며, 전년도 한도액과 집행 실적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찬성 의견을 제안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나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보수의 책정과 지급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

### Discussion

### Proposal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1)	4(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500,000,000	500,000,000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5,000,000

**이사 보수 지급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필요**

▶ 이사 보수 지급 체계의 불투명

나스미디어의 최근 사업연도의 이사 수와 보수한도액, 그리고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3	2014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4 (1)	4 (1)
주총승인금액(백만원)	500	500
실제 지급액 (단위:백만원)	129 (9월말 기준)	(예정)

위의 표에서와 같이 보수 한도액과 실제 지급액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금번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제안한다. 다만 임원의 보수는 주주가 임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므로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와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감사 보수 한도액과 실적

나스미디어의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 수와 보수한도액, 그리고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3	2014
감사의 수	1	1
주총승인금액(백만원)	-	5
실제 지급액 (단위:백만원)	- (9월말 기준)	(예정)

위의 표에서와 같이 보수 한도액과 실제 지급액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금번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제안한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네비스탁의 독립적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의견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의 권고 및 신용평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의 내용은 네비스탁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네비스탁이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비스탁은 본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자료, 정보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를 포함한 네비스탁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네비스탁의 소유입니다.

네비스탁

[www.navistock.com](http://www.navistock.com)